

54年卒業同期

◇ 入學 20日 만에
六·二五비극

한정이	1950년 6월 5일
임로	6·25사변이 일어
나기	20日前이었어요. 6
네제	중화를 존중하고 대
학엔왔는데, 당시	東人는 佛敎정신아래 학종이 뚜
여한	民族의 대학 같았고
또한	惠化전문들이 전통
파	국내 정장의 학자들
이	이 모였답니다. 소문이
나하영	교령이 殿院에 진
페르모인。	되었던 것입니다.
▲ 안체란=당시	장의 드
주로	제2강당(지금의 藝
政殿)	에서 이뤄졌는데,
梁柱東박사의	詩가 섞여

解密을 그린다

歷史의 기술에서 思想의 전개 試圖 大東亞戰爭등은 佛敎界混亂조래

論著書
中心으로
整理하
본▼

<5>

상변회는 1940년이래 학회전회
학회로 나온다면 본교가 동국대학교로
승격되었고 민주당 교육이 실현되었다.
현대였다. 서구의 諸사조도 발달하여
물질문화가 높아졌다.
불교계도 새로운 전서를 위해 전통하고
있고 따라서 실증적인 흐름을 갖게 되었다.

들이 그들이 전쟁에 합류해 사기고
내놓아 것이다. 1944년 전쟁이
치른 후 전쟁은 미국 불교계는 물론
전쟁에 뛰어들어 복무를 했지만
제 봉당법은 그것을 불교계만이 철학
한 예전에 고집이고 험수 없는
사정이었다.

고失望
▲朴逸逸||입학전연 大
學을 外形만으로 생각하
고 대단하게 여겼는데,
실제 大學에 와보니 우
리 전정도밖에 안된것 같아
아 실망하기도 했어요 거
기다가 入學20일만에 6
-25를 당했으니 더욱 실
망한 거지요.
그후 피난에서 다시
만났을때 교수들은 낫이
좀 있었으나 혜화동교사
에서 만난 친구들이 솔

◆ 참석자 명단 ◆

- ▲ 朴載逸 <前白羊酒造社長>
- ▲ 沈우준 <中央大教授>
- ▲ 安채관 <福地中高校長>
- ▲ 吳應煥 <大韓住宅公社감사실장>
- ▲ 李相直 <大韓工商會議所理事>
- ▲ 張鼎錫 <장정석 医院원장>
- ▲ 韓元九 <서울新聞論說委員>

가락으로 꿈을
정도였어
요. 채널들도 익히기 전
이였으니깐요.
▲ 沈우준 한가지 6.
25 사변이 발발하자 東大
門市場에 많은冊이 쏟아졌다.
고, 年下가 교수인 정후

名教授 강의엔 講義室 滿昌

講義室満員

解교수가 많은 첫도그 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에서 战時연합
20일 만에 六·二五교는자사開

昌元窯業株式會社
서울·城東區 城內洞 218
☎ (55) 5041·3306

학 발 서 깨 고객본위·친절봉사

교수가 모자랄때는 冊을
가지고 배우되 좀더 現
代의으로 工夫를 해겠으면
해요。

